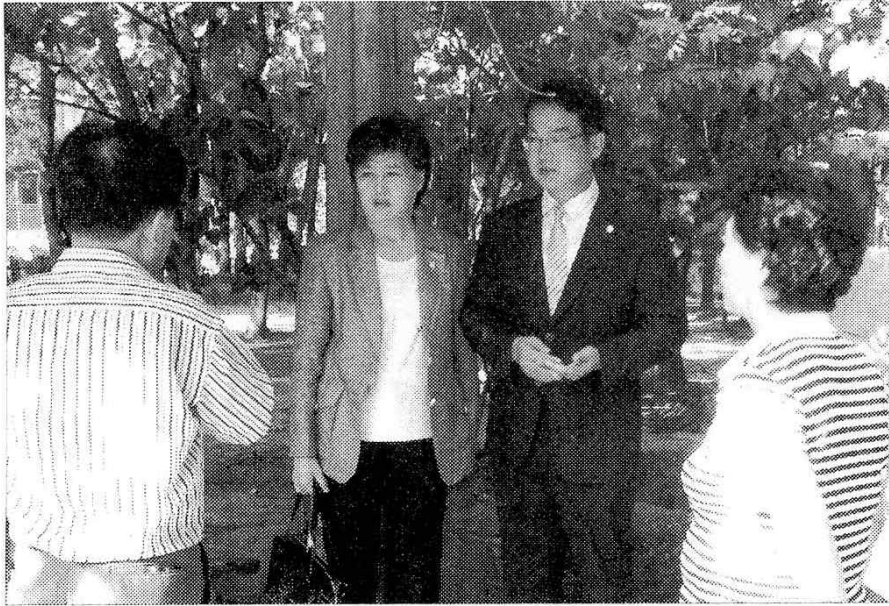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0년
9월 14일
(화요일)



강남연·구본승 구의원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6일 오후, 오현초교 옆 오현어린이 공원에서 강북구청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주민공원’ 조성위한 서명운동 전개

강남연·구본승 구의원 제안으로 예산확보 나서기로

강북구 번3동 주민공원 조성을 위해 강북구의회 강남연·구본승 구의원이 예산확보를 위한 주민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강남연·구본승 구의원은 지난 6일 오후, 오현초교 옆에서 지역 주민들과 강북구청 관계자 등과 함께 ‘번3동 주민공원’ 조성을 위한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이곳에서 이들 구의원들은 “오래된 오현어린이공원과 그 옆에 있는 공터 부지를 합쳐서 번3동 주민공원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현장에 나온 강북구청 관계자는 “오현어린이 공원의 놀이시설이 오래되어 교체해야 할 시기이기에 주민공원 조성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

다”고 답했다.

현장 실사에 함께 한 주민들은 “(조성될 예정인 주민공원)학교 옆에 위치해 있고 주민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라 주민공원이 새롭게 조성되면 더 많은 어린이, 어르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다”며 주민공원 조성에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날 강남연·구본승 구의원은 주민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두 의원이 적극 노력하고 주민들은 9월부터 사업이 결정될 때까지 공원조성 청원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강북신문

북한산 둘레길 개통식 참석



유군성 강북구의회 의장은 9월 7일 오후 2시 북한산둘레길탐방안내센터(강북구 수유동 소재)에서 개최된 ‘북한산 둘레길 개통식’에 참석하여 그동안 노고가 많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둘레길을 탐방하였다.